



e스포츠 국가대표팀 AG 출정식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e스포츠 국가대표팀 조성주, 최우범 감독, 이재민 코치, 고동빈, 김기인, 한왕호, 이상혁, 박재혁, 조용인(왼쪽부터)이 21일 출정식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e스포츠협회

“LoL·스타크래프트2 두 종목 싹쓸이 우승”

주장 고동빈“첫 시범종목 반드시 금”

“국가대표팀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 보이겠다.”(“페이커” 이상혁) e스포츠 태극전사들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향한 의지를 불태웠다. e스포츠 국가대표팀은 21일 서울 상암 에스플렉스센터 명예의 전당에서 출정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한국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리그오브레전드’(LoL)와 ‘스타크래프트2’ 두 종목에서 금빛 사냥에 나선다. 두 종목 모두 우승 가능성이 높다.

LoL은 총7차례의 ‘월드컵’(세계대회) 중 5회 우승할 정도로 한국이 강세인 종목이다. 세계적 스타 이상혁을 비롯해 고동빈, 한왕호, 박재혁, 조용인, 김기인 등 최정상급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나선다. 6월 치러진 동아시아 지역예선에선 8승2패로 조1위를 차지했다.

최우범 감독은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는 것이고 성적에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 부담스럽기도 하다”면서도 “믿을 만한 선수들이어서 합만 잘 맞추면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선수들도 금메달에 대한 투지를 불사르고 있다. 주장 고동빈은 “e스포츠가 처음 시범종목으로 채택됐고, 기대가 큰 만큼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고 말했다. LoL 팀은 24일 출국 예정이다.

스타크래프트2는 LoL보다 한국의 금메달이 더 유력한 종목이다. 국내외 대회를 싹쓸이하고 있는 ‘마루’ 조성주가 출전한다. 지역 예선에서도 5전 전승을 거뒀다. 조성주는 “부담도 있지만, 기대도 된다”며 “스타크래프트2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고 말했다. 조성주는 28일 출국한다.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인 e스포츠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 마하 스퀘어의 브리타마 아레나에서 26일부터 9월1일까지 치러진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LoL은 27일부터 29일까지, 스타크래프트2는 30일 열린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일본 국제망신 시킨 AG 농구선수 성매매 파문 | 종합대회서 빈번한 선수들의 일탈...왜?



유형업소 출입과 성매매 행위가 발각돼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도중 퇴출된 일본남자농구선수 4명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20일 자카르타공항으로 들어서는 모습(왼쪽 사진). 미국의 수영스타 라이언 록티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도중 음주파티를 벌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강도를 당했다는 거짓말을 해 큰 물의를 빚었다.



AP뉴시스

선수촌은 청춘 해방구...감기처럼 유혹에 전염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본선수단이 개막 직후부터 성(性) 스캔들로 시끄럽다. 남자농구선수 4명이 대표팀 공식 복장으로 17일 새벽 자카르타의 유흥가를 출입하다 발각됐다. 일본선수단은 4명의 선수자격을 박탈하고 즉시 귀국시켰다. 미쓰야 유코 일본농구협회장이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문을 조기에 수습하려고 노력중이다.

●종합대회 때마다 반복되는 일탈행위 대형 스포츠 이벤트마다 나오는 선수단과 관계자의 일탈 뉴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 스포츠 현장을 지켜본 기자들의 머리 속에서는 이런 종류의 스캔들이 데이터로 남아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때는 미국수영선수들의 강도 자작극이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금메달리스트 라이언 록티 등 4명의 선수가 심야에 유흥가에서 놀고 온 것도 모자라 강도를 당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브라질 정부가 관련 선수들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희생해온 브라질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거짓말의 대가는 혹독했다. 전도양양했던 미국의 수영 영웅은 하루아침에 거짓말쟁이가 됐다. 10개월간 선수자격도 박탈됐다. 개인 통산 12개의 올림픽 메달을 땀던 록티는 “그 사건 이후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한순간의 일탈이 부른 대가는 상상 이상이었다. 반성하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혈기왕성한 선수들은 그것을 심각하

美 수영스타 록티 리우서 강도 자작극 시드니선 한국야구선수들 카지노 출입 혈기왕성한 선수들 일탈의 심각성 망각

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유분방한 외국의 선수들만 사고를 치는 것은 아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 우리 야구대표팀의 몇몇 선수들은 카지노 출입 파문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도박장에 간 혐의를 받던 선수들은 끝까지 부인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선수들이 경기에 전념한 덕분에 일본을 누르고 동메달을 따면서 유아무아됐지만, 자칫 대표팀의 팀워크와 한국프로야구의 이미지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었던 대형사고였다.

●왜 종합대회에서 일탈행위가 많이 생길까 팬들은 종합대회에서 선수들의 일탈행위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궁금할 것이다. 사실 종합대회가 아니라도 선수들의 문제행동은 나온다. FTVB(국제배구연맹)가 주관하는 배구월드리그에 참가한 쿠바선수들이 핀란드에서 집단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것이 2년 전이다. 혈기 넘치고 공격성향이 강한 선수들은 경기의 승패와 힘든 훈련, 단체행동과 규율의 스트레스 속에서 산다. 이런 선수들은 풍선처럼 누르면 들어가는 하지만, 어느 한도를 넘어서면 터진다. 선수들은 밖에 있는 시간이 많다. 젊고 잘 생겼고 돈도 있다. 유명하다보니 주위의 유혹도 많다. 그래서 항상 위험한 경계선 주변

젊고 유명한 선수들, 주위 유혹에 노출 선수촌 들뜬 분위기 휩쓸리면 위험천만 감독도 선수들 밤 생활 통제 방법 없어

을 맴돈다. 코칭스태프가 철저히 감시의 눈길을 두고 적당히 주의도 주면서 사생활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종합대회에선 이것이 쉽지 않다. 종합대회에는 수많은 선수들이 머문다. 선수들의 해방구인 숙소는 엄청난 규모다. 이 숙소의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순간 선수가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낼 수단이 외부인에게는 없다. 선수들끼리 함께 모여 있다보니 감기처럼 주위환경에 쉽게 전염된다. 누군가의 코드김이 오면 잘 넘어간다. 혼자보다 집단이 되면 죄책감이 없어지고 더 용감해지는 것이 인간의 공통심리다. 종합대회는 수많은 종목의 대회가 동시에 열리다보니 종목마다 스케줄이 다르다. 어느 종목은 이미 대회를 마치고 마음 편히 놀고, 어느 종목은 시작도 못한 채 긴장하면서 대기해야 한다. 좋은 결과를 받아든 선수들은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는다. 성격이 나쁜 선수는 다른 것에서 위안을 찾고자 한다. 각국의 선수와 자원봉사자 등이 모여 사는 선수촌은 다양한 접촉이 가능하다. 더구나 국내도 아니고 해외라면 훨씬 마음이 상충생송해진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주위의 분위기에 휩쓸리면 일탈이다. 제 아무리 선수관리가 철저하고 무서운 감독이라도 선수들의 밤 생활을 통제할 방

법은 없다. 시드니올림픽 당시 야구대표팀 김용용 감독은 카지노 파문이 문제되자 “선수들이 밤에 감독 몰래 나가려고 마음먹으면 알아차릴 방법도 없다.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선수관리로 유명한 신치용 삼성화재 고문도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때 몰래 술 먹으러 나갔던 선수 문제로 고민했다. 열길로 새려는 선수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막지 못한다. 그렇다고 감독, 코치가 숙소 방문 앞에서 진을 치고 지키는 것은 모양이 우습다. 자칫 선수와 코칭스태프의 신뢰관계를 해칠 우려도 있다. 오래 전 어느 프로축구단의 수석코치는 큰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의 사생활을 통제하려고 원정숙소의 방문을 열고 자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다. 결과는 실패였다. 선수들이 반발했다. 그 팀은 중요한 경기에서 졌고, 코치는 시즌 뒤 웃을 벗었다. 몇 년 전 어느 프로야구단의 사장은 원정 숙소에서 선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CCTV를 동원했다가 법적인 문제를 만들었다. 결국 선수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대회 기간 자신들을 응원하는 팬과 유니폼에 붙은 국가가 주는 무게를 생각하며 행동을 절제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교통사고처럼 방심하면 나오는 이런 종류의 일탈행위는 결국 본인의 책임이지만, 결과가 너무 뼈아프기에 자중자약을 당부한다. 이제 일본의 농구선수 4명에게는 평생 동안 자카르타 성매매 선수라는 딱지가 붙을 것이다.

김종천 전문기자 marco@donga.com

이영애 사전 유출, 김빠진 성화 점화...카메라 훔쳐 퇴출된 日 수영선수

AG 역사에 기억될 사건·사고들

승마선수 김형철, 낙마사고 사망 비극 남자핸드볼 올린 중동 심판 편파판정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이 부실한 대회 준비와 운영으로 거듭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 도중 정전사태를 비롯한 잦은 시설 이상으로 벌써 ‘부실대회’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여기에 더해진 일본남자농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유형업소 출입 및 성매매 행위는 이번 대회를 지켜보는 아시아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스포츠를 통해 아시아인의 화합과 공존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지만 역대 아시안게임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이후 최근 대회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돌아본다.

●2014년 인천...성화 점화자 사전유출 의욕만 앞서서였을까. 한국에서 개최된 스포츠 이벤트치고는 유독 오점이 많았다. 대회의 상징인 성화부터 꼬였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개막 직전 배포한 보도자료는 몹시도 친절했다. 실명만 밝히지 않았을 뿐 상세한 설명을 통해 성화 점화자가 배우 이영애임을 스스로 유출하고 말았다. 개회식 다음 날인 9월 20일에는 안전장지 오작동으로 성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배우 이영애(왼쪽 사진 오른쪽)가 개회식 성화 점화자임을 스스로 유출하는 실수를 범해 빈축을 샀다. 일본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오른쪽 사진 가운데)는 인천아시안게임 도중 한국 취재진의 카메라를 훔쳐 한국 법정에 섰다.

스포츠동아DB·뉴시스

화가 10분 넘게 꺼지는 해프닝도 더해졌다. 이밖에 베드민턴경기장에서 정전사태와 에어컨 바람방향 때문에 괜한 오해가 빚어지는 등 허술한 대회 운영이 끊임없이 입방아에 올랐다.

●2014년 인천...카메라 훔친 일본수영선수 일본남자수영대표 도미타 나오야는 9월 25일 인천 문화박테환수영장으로 동료들을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취재진의 카메라를 훔쳤다. 4년 전 광저우대회 남자 평영 200m 금메달리스트인 그는 절도 혐의를 부인하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CCTV에 달미를 잡혔다. 일본선수단에서 퇴출됐고, 이듬해 한국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0년 광저우...여자축구 시상식 비매너 논란 11월 22일 광저우 텐허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여자축구 결승전. 북한이 일본에 0-1로 져

아시안게임 3연패가 좌절됐다. 이어진 시상식, 동메달을 딴 한국선수들과 함께 시상대에 오른 북한선수들은 일장기가 올라가자 모두 등을 돌렸다. 패배의 아쉬움과 반일감정이 뒤섞인 행동으로 풀이됐지만, 비매너 논란을 비껴갈 순 없었다.

●2010년 광저우...태권도(여자 49kg급) 실격패 파장 11월 17일 광저우 광동체육관에서 펼쳐진 태권도 여자 49kg급 예선에서 대만의 양수전은 규정에 어긋난 전자호구 발뒤꿈치 센서를 부착한 채 경기에 나섰다가 반칙패를 당했다. 대만 전역에선 순식간에 반한·반중감정이 일었다. ‘중국 우징위의 우승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결탁해 양수전을 실격시켰다’는 선동이 잇따랐다. 해당 경기 심판진에 한국인이 없었음에도 개최국 중국과 결부시켜 한국을 성토했다. 양수전은 추후 세계태권도연

맹(WTF)으로부터 3개월 출전정지의 추가징계도 받았다.

●2006년 도하...승마 낙마·사망사고 한국의 국제대회 출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고가 12월 7일(한국시간) 도하 승마클럽에서 열린 종합마술 개인·단체 크로스컨트리 경기 도중 일어났다. 올림픽에 2번, 아시안게임에 4번 출전하고 당시 한국선수단에서 최고령(47)이었던 김형철이 경기 도중 낙마사고로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그의 조카인 김균섭은 4년 뒤 광저우에서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건 뒤 삼촌의 영정 앞에서 감사인사를 올렸다. 고인은 2015년 체육유공자로 선정됐다.

●2006년 도하...남자핸드볼 준결승 편파판정 12월 12일 알가리파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남자핸드볼 준결승. 대회 6연패에 도전한 한국은 중동 심판의 노골적 편파판정에 휘말려 개최국 카타르에 28-40으로 졌다. 아시아핸드볼연맹(AHF) 회장국 쿠웨이트의 심판 2명은 카타르선수와 살짝 스치기만 해도 한국선수의 파울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쿠웨이트와의 본선리그 최종전에선 카타르 심판 2명이 한국에 불리한 판정을 뒤흔들었다. 오일달러를 앞세워 아시아핸드볼계를 장악한 중동세력이 ‘금메달은 쿠웨이트, 은메달은 카타르’라는 사전각본을 짜놓고 한국을 희생양으로 만든 추악한 승부조작이었다. AHF는 한국의 재경기 요청마저 묵살하는 등 그 뒤로도 줄곧 회포를 일삼았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편집 | 인도영 기자 do02@donga.com